

# ‘소년범 논란’ 조진웅, 은퇴 선언...“모든 질책 겸허히 수용”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이자 도리”...비난 여론 속 ‘소년범 취지’ 지적도

배우 조진웅(49)이 이른바 ‘소년범 논란’ 이후 지난 과오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21년 간의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만의 일이었다. 조진웅은 드라마 ‘시그널’, 영화 ‘경관의 피’, ‘독전’ 등에서 형사역을 맡았고,

여러 영화에서 독립투사로 등장하면서 흥행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고,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가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년범 논란은 그가 배우로서 쌓아온 정이롭고 감직한 이미지와 괴리가 큰 내용이라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조진웅은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공식 데뷔했다. 이후 영화 ‘비열한 거리’(2006)와 드라마 ‘술악국집 아들들’(2009) 등으로 대중에 점차 얼굴을 알린 그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들 전성시대’(2012)와 천만 영화 ‘명량’(2014) 등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인지도를 키웠다. 조진웅은 특히 여러 작품에서 형사 역할을 도맡으며 현실감 있는 연기를 보여왔다. 그 시작은 신념이 강하고 정의로운 형사, 이재한으로 등장한 2016년 화제작 tvN 드라마 ‘시그널’이었다. 종영 이후 후속작 요청이 끊이지 않던 ‘시그널’은 내년 상반기 10년 만의 후속작 ‘두번째 시그널’ 공개를 앞둔 상황이다. 다만 조진웅의 과거 논란으로 방영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




드라마 ‘시그널’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해지지 않았다. 조진웅은 은퇴 선언 직후 SBS는 ‘독전’(2018)과 ‘독전 2’(2023), ‘경관의 피’(2022)에서도 연달아 형사로 등장했고, ‘블랙머니’(2019)에서는 검사 역을 소화했다. 이 같은 이력을 배경으로 초국가범죄 조직의 추격기를 그린 SBS스페셜 다큐 ‘범죄와의 전쟁’의 내레이션(해설)도 맡았다. 현재 방송 중인 4부작 다큐멘터리로, 조진웅의 은퇴 선언 직후 SBS는 해설자를 교체하고 이미 방송된 분량도 수정을 진행 중이다. 영화 ‘대장 김창수’(2017), ‘암살’(2015) 등에서는 독립투사를 연기했다. 이 이력은 2021년 그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과정에 국민특사로 함께하는 계기가 됐다. 조진웅은 당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파묘식부터 대한민국 대전현충원의 유해 봉환식까지 전 과정에 동행했다. 당시 KBS 1TV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를 방송했지만,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로 전환됐다. 조진웅은 국민특사 활동 이후 흥행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의 내레이션도 맡았다. 그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일각에선 소년범 목적이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거듭 속에 해매는 청소년에게도 좋은 길잡이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19일 천문역연 (062)673-2427
	쥐띠: 일에 대한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 한다. 36년생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48년생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60년생 규칙적인 운동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하면 일도 잘 풀린다. 72년생 뜻밖의 상대에게 이성의 감정이 생긴다. 이루어질 수 없으니 마음을 접어야겠다. 84년생 다소 매정해 보일지 모르나 일은 일대로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처리해야 한다. 96년생 비뚤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멀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행운의 수: 14    행운의 색: 초록색	
	소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처음 마음먹은 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37년생 덕으로 이기는 사람은 흥하고 힘으로 이기는 사람은 망한다. 49년생 따사로운 기운과 부드러운 여유가 함께 하는 날이다. 61년생 용기를 가져라. 우선 상대의 제안을 고려하라. 73년생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85년생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해오던 것이 주위에서 알게 되고 인정해줄 것이다. 97년생 자신의 주장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09년생 즉흥적인 것은 위험하다. 먼저 철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행운의 수: 09    행운의 색: 은색	
	호랑이띠: 마음이 편해아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38년생 신경과민으로 칸디선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라. 50년생 남과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면 승산이 있다. 62년생 새로운 인생의 철학이 생기기 되는 계기가 있다. 74년생 정에 의존하면 큰 화를 자초하게 될 수 있다. 86년생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더욱 분발해야 한다. 금전운도 회복된다. 98년생 지금은 알아차리지만, 꼭 필요한 일에 쓰게 되니 즐겁다. 10년생 생각 이상으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수: 48    행운의 색: 주황색	
	토끼띠: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합격한 것 같은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39년생 도와주려는 마음은 좋지만, 상대가 조안을 받아들이 준비가 안 된 듯하다. 51년생 사람 같고 돈 낚지 돈 같고 사람 나지 않았다. 63년생 잘 참아준 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 75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다. 87년생 어려운 일도 너그러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99년생 먼저 고개를 숙이면 여러모로 편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11년생 기본에서 생각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다. 행운의 수: 03    행운의 색: 분홍색	
	용띠: 오솔길에서 큰 길로 나아가는 운세이니 어려모로 길하다. 40년생 현재 상황에 만족할 만하니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을 낸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2년생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만, 잘 해결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64년생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근본을 고쳐야 한다. 76년생 가족의 건강을 머리마리 챙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88년생 지인들과의 지출이 늘어나지만, 나가는 것만큼 들어온다. 00년생 무리하게 자신을 억제한 건강이 나빠지므로 주의할 것. 12년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오늘은 머리 회전이 잘 된다. 행운의 수: 17    행운의 색: 민트색	
	뱀띠: 어설피게 어쩔쯤 넘어가다가 가는 서로 더 불편하게 된다. 41년생 살얼음판을 건너는 것처럼 불안하다면 잠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다. 53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면 보답을 받는다. 65년생 건강은 닦는 듯하다가 오후에는 더할 수 있으니 밤샘하지 마라. 77년생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불행은 막을 수 있다. 89년생 상대편 처지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 모두가 좋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01년생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힘들어도 견뎌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행운의 수: 26    행운의 색: 빨간색	
	말띠: 바둑을 쳤으니 이제는 더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다. 42년생 모처럼 좋은 기회 다 했는데 뒤통수 하다가도 안 될 수 있다. 54년생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둘 사이 문제는 둘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더 시끄러워질 뿐이다. 78년생 지인들과의 자리를 만들어 쉽게 말하기 힘든 마음속 이야기를 해설해 주라. 90년생 실연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새로운 상대가 나타난다. 02년생 남의 말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신을 돌이켜 보라. 행운의 수: 12    행운의 색: 황금색	
	양띠: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니 소신을 가지고 대범하게 행동하여 성과를 이루어라. 43년생 뜻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기쁨을 안겨주는 운세다. 55년생 다시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67년생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개견하거나 나서지 마라. 79년생 할 말을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다. 91년생 어느덧 지쳐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즐겨라. 03년생 아무런 보기가 실린 사람도 아쉬운 때는 생각이 나기 마련이니 너무 매정하게 대하지 마라. 행운의 수: 35    행운의 색: 주황색	
	원숭이띠: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익이다. 44년생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진행될 것이니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 56년생 한 가지를 정하면 중도에 변경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68년생 자신의 인생에 불만처럼 꽃이 활짝 피고 화창한 날씨가 된다. 80년생 삶의 주제가 바로 자신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92년생 뻥뻥한 일상에 지쳐 있으니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고 쉬어라. 04년생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 즐거움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수: 47    행운의 색: 파란색	
	닭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 큰 일의 시초는 아주 보잘것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45년생 사람 같고 돈 낚지 돈 같고 사람 나지 않았다. 57년생 당장 흑백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 69년생 냉정하게 상황을 보아라. 욕심이 앞서면 시야가 흐려져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다. 81년생 뜻 맞는 협력자가 나타난다. 함께 진행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93년생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폭격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자신의 품위가 올라간다. 05년생 화가 나도 참는 것이 상책이다. 감정대로 하면 후회만 남기게 된다.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분홍색	
	개띠: 항상 잘 조심해야 하며, 대중 중에 자신에게 집중적으로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46년생 괜히 속상해져서 어린이아치령 투정을 부릴 수 있다. 58년생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은 부딪쳐보아야 한다.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이다. 70년생 가족간의 소통을 얻고자 한다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82년생 드디어 겁이 들리게 된다. 뿌린 만큼 풍성한 수확이 들어올 것이다. 94년생 마음부터 달라지면 기분이 실수하게 된다. 06년생 필요없는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행운의 수: 06    행운의 색: 검은색	
	돼지띠: 순간 판단력도 좋아지니 추진하는 일에 막힘이 없겠다. 다만 무모한 자신감은 금물이다. 35년생 겉으로 드러난 한 번의 행동으로 의심을 해서 안 된다. 47년생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감정적인 말들만 오고 갈 수 있다. 아예 말을 꺼내지 마라. 59년생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71년생 밝은 얼굴을 유지하라. 긍정적인 생각이 상황을 호전시킨다. 83년생 너무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자기 능력에 맞춰 본분을 지킨다면 무난할 것이다. 95년생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 도움이 된다. 어두웠던 마음이 오늘은 한결 밝아질 것이다. 행운의 수: 89    행운의 색: 초록색	

<div> 광주교통방송 FM 97.3MHz</div>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회준   진행자: 노혜설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진행자: 장원나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진행자: 윤지현   작가: 정안숙 출몰운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진행자: 최유규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프로그램 안내		KCTV특집 < 지방소멸과 AI, 데이터를 확보하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 2025 AI : 디지털 기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 공공공익 다큐 선정작. AI 시대 속 왜곡되고 잊혀지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학습데이터 구축의 부실 현황과 중요성에 대해 조명한다. 방송 : 12월 10일(수)~12월(금) 21:00~21:50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들,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네트워크발굴 서울광광 < '우아한' 광주 대표 개장 맛 > 4곳의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의 맛과 맛의 현장. 이번 화는 광주 동구의 개장의 맛을 전국으로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촌동의 우아한 개장을 찾아가 그 맛의 진수를 경험한다. 방송 : 12월 9일(화)~12월 12일(금) 20:20~20:50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O네트워크 < 오! 정해보고 전남 순천 편 > 방송인 오정해와 떠나는 지역 케이블방송사 공동제작 '짠' 현지 탐방프로그램. 국가 정원으로, 생태도시로 '뜨고 있는 도시' 순천을 찾아가. 방송 : 12월 11일(목)~12월(금) 13:00~13:50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